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㊷ 대상과 경계

"여러분, 그대들이 만약 법에 맞는 견해를 얻으려면 남의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되느니라. 안으로든 밖으로든 만나면 그냥 죽여 버려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며 부모를 만나면 부모도 죽이며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 버려야 비로소 해탈을 얻을 수 있느니라. 어떤 경계에도 구속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하게 되어야 하느니라. 제방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찾아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느니라. 산승은 이곳에서 처음부터 쳐버리느니라. 손에서 나오면 손으로 치고 입에서 나오면 입으로 치며 눈에서 나오면 눈으로 치나니 홀로 툭 튀어나온 사람은 누구 하나 없었느니라. 모두가 옛사람들의 쓸데없는 기틀의 경계에 놀아나고 있을 뿐이었느니라."

서산대사가 지은 〈선가구감〉에 임제가풍을 나타낸 말이 있다. "맨손에 단칼을 들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고 하였다. 바로 이 장에서 인용된 말인데, 부처와 조사는 물론 나한과 부모, 친척 권속까지 죽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에 맞는 견해를 얻고자 할 때'라는 단서를 붙이고 한 말이지만 죽인다는 말이 등장하니 살벌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런 말은 선(禪)에서만 할 수 있다. 불교, 특히 선(禪)에서는 교조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서양종교와는 달리 교조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자기 독립이다. 〈임제록〉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이나 '무의도인(無依道人)'은 어떤 상황설정의 위치가 없다. 나와 상대되는 어떤 대상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설적으로 부처를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닌 것이다.

'죽인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처나 조사에 대한 생각, 나한이나 부모 친척 권속에 대한 생각이 몽땅 끊어지면 죽여 버린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밖으로 객관 경계를 따라가 어떤 대상을 의식하게 된다면 이는 선(禪)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의식이 멈춰진 것이 선(禪)이다. 의식이 멈춰지면 부처도 없고 찾을 것도 없다. 그냥 마음인데 부처와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나 이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이 부처'라 한 것이다. 선가에서 '마음이 곧 부처(卽心卽佛)'라는 말은 마조 도일(馬祖道一 · 709~788)이 처음 썼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스님이 마조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왜 마음이 부처라 하십니까?" 답하기를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울음을 그치고 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전등록〉에 나와 있는 말이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말이라고도 한다. 장님에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혹 눈을 수술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다. 그때는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달을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속에 우화한 토막이 나온다. 눈이 먼 장님이 지팡이 끝을 의지하여 자기 집을 나와 꽤 먼 길을 갔다. 눈이 멀어도 특이한 감각이 있어 지팡이로 더듬으며 천천히 길을 가는 수가 있었다. 먼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변이 생겼다. 장님의 눈이 번쩍 떠져 버린 것이다. 이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눈이 떠진 장님이 어리둥절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지팡이 끝으로 더듬어 올 때는 올 수가 있었는데 눈을 뜨고 난 후에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는 데는 망념이 걷히어야 한다. 번뇌에 덮여 있는 마음은 구름 낀 하늘과 같아 본래의 청명한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부처나 조사 혹은 아라한이나 부모를 의식하여 생각이 관념을 만들고 있으면 병든 눈이 허공의 꽃을 보는 것과 같이 된다 하였다. 그래서 임제는 버리라는 말을 죽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현실세계, 苦果 받는 緣因果의 반복



세상 속 경전읽기

㊷ 사제십육행상(四諦十六行相)

현실세계는 번뇌[惑]를 연(緣)으로, 신구의(身口意) 3업인(業因)을 지어, 고과(苦果)를 받는 혹업고[惑業苦, 곧 연인과(緣因果)]의 반복이다.

사제의 고집(苦集)은 '미계(迷界)인과[연기의 입장에서 본 범부의 삶]' 곧 유전(流轉)인과로, 표면적 현상인 고과(苦果)의 심층적 원인인 집인(集因)은 3애[三愛; 欲愛 · 有愛 · 無有愛] 또는 3독[三毒; 貪瞋痴], 한마디로 무명업(無明業)이라는 것이다.

사제의 멸도(滅道)는 '진리를 깨닫는 세계[悟界]의 인과' 곧 환멸(還滅)인과로 고를 멸[滅苦]하려면 중도인 8정도(正道), 한마디로 정견[正見, 明]을 닦는다. 이는 곧 수도증멸(修道證滅)하는 현성[賢聖; 현자와 성인]의 삶으로, 밝은 지혜를 연(緣)으로 청정한 행[淨行因]을 지어, 열반의 락과(樂果)를 얻는 것이다. 즉 범부의 혹업고를 현성의 명행락(明行樂)으로 바꾸는 것이다.

근본불교의 수증체계는 3현4선근[三賢四善根, 七方便]의 현위(賢位)를 거쳐, 사향사과(四向四果)의 성위(聖位)에 이르는 것이다.

삼현은 오정심관(五停心觀) · 별상념주(別相念住) · 총상념주(總相念住)이다. 오정심관은 거칠고 강한 5장애(障礙)의 정지(停止)를 위해 닦는 5관(觀)인, 부정 · 자비 · 인연 · 계분별 · 수식관(不淨 · 慈悲 · 因緣 · 界分別 · 數息觀)이다. 별상념주는 신 · 수 · 심 · 법(身 · 受 · 心 · 法)을 각각 부정 · 고 · 무상 · 무아(不淨 · 苦 · 無常 · 無我)라 별관하는 사념주관(四念住觀)이고, 총상념주는 사념주(四念住) 전체를 무상 · 고 · 공 · 무아라 총관한다.

4선근은 난 · 정 · 인 · 세제일법(煖 · 頂 · 忍 · 世第一法)이며, '견도무루지[見道無漏智; 견도 이상 성자의 번뇌 없는 지혜]를 발득(發得)할 선근'의 뜻이다. 4선근을 4행제(行諦)라고도 하는데, '사제(四諦)를 관할 때 각 4행상씩 총 16행상[四諦十六行相]'을 두루 거친다는 뜻이다.

〈초전법륜경〉에 고집멸도(苦集滅道)의 4행(四行)을 각각 3전(三轉)해 3전12행으로 설하였다. '이것은 고(苦), 고의 원인, 고의 소멸,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한 번 굴리고[初轉四行; 示轉], '고를 응당 알고[應知], 집을 응당 끊고[應斷], 멸을 응당 증명하고[應證], 도를 응당 닦아야 한다[應修]'로 2전[二轉四行; 勸轉]하고, '고를 이미 알고[已知], 집을 이미 끊고[已斷], 멸을 이미 증명하고[已證], 도를 이미 닦았다[已修]'로 3전[三轉四行; 證轉]하였다. 여기서 초전은 4선근의 세제일법에서 단혹[斷惑; 혹을 끊음]의 무간도(無間道)를 지나 증리[證理; 진리를 증명함]의 예류향[豫流向; 四向四果 聖位의 처음]에 들어가는 견도(見道), 2전은 예류과(果)에서 아라한향(阿羅漢向)에 걸친 수도[修道; 有學道의 漸修], 3전은 무학도[無學道; 阿羅漢果]에 해당한다. 〈구사론(俱舍論)〉 23권에 4성제를 관찰하여 16행상을 닦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난선근[煖法]의 상태가 오래 지속하기 때문에 능히 4성제의 경계를 관(觀)하며, 16행상도 함께 닦는다. 고성제를 관하며 4행상을 닦으니, 1) 비상[非常; 5취온 등의 제법(諸法)은 생멸], 2) 고[苦; 변괴 핍박의 성질], 3) 공[空; 실체성 없음], 4) 비아[非我; 나 혹은 내 것이 아님], 집성제를 관하며 4행상을 닦으니, 5) 인[因; 혹업(惑業)은 고과(苦果)의 원인], 6) 집[集; 혹 · 업이 동등하게 결합], 7) 생[生; 고과를 상속케 함), 8) 연[緣; 고과의 조건], 멸성제를 관하며 4행상을 닦으니, 9) 멸[滅; 오취온의 상속이 다함], 10) 정[靜; 번뇌 없음], 11) 묘[妙; 일체 환난 없음], 12) 리[離; 고를 벗어남], 도성제를 관하며 4행상을 닦으니, 13) 도[道; 멸에 들어가는 길], 14) 여[如; 정리(正理)에 맞음], 15) 행[行; 열반으로 향함], 16) 출[出; 생사고를 결정코 뛰어넘음]이다."

〈阿毘達磨俱舍論 T1558_.29.0119b14–b19〉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깨침의 길 3

知 · 情 · 意 세 가지로 설법

붓다의 깨침은 언어의 길이 끊어진 종교적 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는 깨침의 세계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45년 동안 자신이 깨친 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팔만대장경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경전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깨침의 세계가 언어를 넘어서있다고 하지만, 언어 이외에 그 소식을 전할 마땅한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직접 종교적 체험을 한 이들에게 언어는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붓다는 자신이 깨친 체험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깨치고자 하는 마음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붓다의 깨침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원로 불교학자 강건기 교수는 〈부처님 생애〉라는 저서에서 붓다의 깨침을 지정의(知情意), 즉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지성과 감정, 의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먼저 붓다의 깨침을 감정적(情)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기쁨'이라고 하였다. 불교식 표현을 빌린다면 이는 곧 법열(法悅), 즉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다. 마치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의 황홀한 감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물 안과는 너무도 다른 신세계와 만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저 '아!' 하는 감탄사만으로 충분하다. 붓다는 우물 밖 실재와의 만남에서 느낀 한없는 기쁨, 법열을 몇 주간 즐겼다고 한다.

깨침을 지성적(知)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 되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는 나와 남, 나와 세계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욕심내고(貪),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성을 내며(瞋) 어리석은(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삼독(三毒)에 찌든 중생들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깨침은 나와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깨지는 체험이다. 그렇게 되면 나와 남, 나와 세계가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된다. 깨침은 곧 '깨짐'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깨침을 의지적(意)인 측면에서 표현한다면 '자비로운 삶'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비는 나와 남, 나와 세계가 하나 되는 체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를 동체자비(同體慈悲)라고 한다. 너와 내가 한 몸(同體)이라는 실상을 깨치게 되면 저절로 자비를 실천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와 이웃이 먼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깨침은 자비와 사랑이 나오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공명(共鳴)이라는 단어가 있다. 글자 그대로 함께(共) 운다(鳴)는 뜻이다. 누군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우는 것이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공명현상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 주파수가 맞을 때 일어난다고 한다. 예컨대 피아노 건반에서 '도' 음계를 치면서 입으로 '도' 소리를 함께 내면 손가락을 떼더라도 피아노에서는 계속 '도' 음이 울린다. 피아노와 내 입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서로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입에서 '도'가 아니라 '파'나 '솔' 소리를 낸다면 진동수가 맞지 않아 피아노에서 울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명현상은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이 죽어갈 때 많은 이들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 마음의 주파수가 서로 맞았다는 뜻이 된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울었던 것이다.

깨침은 너와 나의 벽이 깨져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인 지혜의 샘에서 사랑과 자비의 샘물이 솟아 나온다. 진리의 세계, 깨침의 세계, 우물 밖의 세계가 이런 곳이라면 한없는 기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우리가 깨침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 양초 보시 대행 ✻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 / 의사 / 약사 / 재력가
사업가 / 공무원 / 교수 / 회사원 등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김계숙 원장

◈1:1 집중관리
◈신뢰·정확한 정보
◈성사위주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